

# G20: 시의 적절한 토론회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

[인쇄본을 주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저해상도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뉴스레스크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우리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유한 국가건 빈곤한 국가건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간격이 없어져야 한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세계를 또 다른 대공황으로 몰고갈 수 있는 경제침체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결과는 이러한 최악의 예측보다 양호했습니다. 예측보다 양호한 결과에 대한 공로는 G20의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사이에 이루어진 전례 없는 수준의 정책 협력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G20가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의 토론장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입증된 성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20는 올해도 회복을 위한 정책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G20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협력을 목표로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G20는 향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경제 협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측보다 양호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세계 각국 사이의 정책 협력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제기합니다. 위기 상황이 그 극에 달했을 때는 효과적인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손쉽게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이때, 세계는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안일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출구 전략의 적절한 페이스와 순서 결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국제에 관하여 합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합의에 이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보다 일반적인 정책적 입장을 지향하여 최대한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경제 정책의 효율성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추구할 때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의 조화는 모든 국가의 집단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G20의 과제 중 하나는 금융 규제 개혁,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 그리고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틀(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구축에 관한 과거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각종 방안 및 합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G20 지도자들은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 개혁, 너무 비대해져서 파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금융기관들의 문제, 그리고 금융부문 내의 손실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과제를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부여했습니다. 2010년도 G20 정상회담의 장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 규제 시스템의 점검이 견실한 개념적 기초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유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 규제 개혁의 추진력이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최근의 금융 위기의 지리적 발상지였습니다. 그러나 파급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마당에 비난을 떠넘기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세계 통합 경제에서는 각국의 이익이 상호의존적임을 인정하고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구상할 때도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G20 회원국들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시경제적 의미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등, 보다 넓은 의미의 균형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균형 회복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균형잡힌 성장의 필수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G20의 사명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매우 중요한, 시급한 정책 및 개혁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0년 11월 11-12일에 개최되는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개발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원조 정책에 관한 경험으로 볼 때, 원조만으로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궤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훨씬 더 깊이 궁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간이 빈곤의 해소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하는지 잘 압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경제 개발의 직접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또한 금융 위기의 파급적인 영향과 그로부터의 견실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G8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서 G20을 개최하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제시함에 있어서,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G20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협력자들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한국은 UN 및 기타 지역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교섭 활동을 펼 것입니다. 최빈곤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가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결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는 11월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제시할 다른 중요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자본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한국은 유동성 위기의 파괴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구축을 안건의 하나로 제시할 것입니다. 전세계가 이제 막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지금, 금융시장이 경제 원칙에서 벗어날 때의 공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책을 세워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상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협력적 대처를 통해 안정되었지만, 민간부문 투자와 고용 창출의 안정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성장을 재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고용 창출과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강조의 일환으로, 한국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과 더불어 기업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서 각국의 국가 경제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G20는 매우 시의적절한 토론회입니다. 주요 선진경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경제국을 포함함으로써 G20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오는 11월의 서울 G20 정상회담은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정기적 토론회로 자리잡고자 하는 이 새로운 글로벌 토론회의 중요한 첫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G20의 지도자들이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는 세계를 단결시켜주고 효과적인 협력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주었지만,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모은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